

專門職業人의 保護育成이 時急하다

具 玠 會
화신건축연구소

최근 대학입시경향을 보면 학력고사 고득점 수험생이 대거 建築科를 지망하고 있으며 합격선도 크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나라 建築文化 暢達을 위하여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건축을 전공하려는 젊은 세대의 觀念속에는 꿈과 낭만이 있고 화려하리라 기대한다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닐까 생각된다.

어느 專門職이고 간에 손쉬운 것은 없다. 더욱이 건축분야에 있어서 設計라는 직분은 그야말로 荊險한 길일 수 없다.

오늘날 개업 建築士의 실상은 불과 幾個人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피로에 지쳐있다. 영세성은 말로 아니다.

물론 設計란 致富의 수단이 될수 없다. 그러나 최소한의 생활보장은 불가피하며 사무실 운영에 급급한 나머지 도무지 작품의 세계와는 자꾸만 멀어져 간다.

이와같은 현실에서 더욱 안타까운것은 대학졸업예정자들의 취업경향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당연히 수련하여야 할 설계실무를 외면하고 대부분 시공회사쪽으로 발길을 돌

리고 있다. 따라서 고급인력을 확보하기는 더욱 힘들고 창작활동의 鈍化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建築不在論이 대두될 때마다 건축인으로써 자책과 동시에 정책부재를 통감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마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이 非專門職者에 의하여 專門職者가 추출 당하는 비리가 「건축부재」와 는 절대적 함수관계에 있다고 보며 소위 전문직자인 建築士의 자질에도 큰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면허 소지자가 무면허자에 예속 매수되어 많은 건축사의 권익을 짓밟는 사례와 재벌의 문어발식 기업은 「바로하는 위치로 탈은 바뀌고」 設計用役 분야까지 침투, 非理의 建築士로 하여금 교묘한 변칙수단으로 위장 개업을 하여 수많은 건축사의 생업을 위협하는 반역 행위는 차제에 발본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역사적인 대과업인 '86 Asian game과 '88 Olympic game을 목전에 두고 있다. 두말할 나위없이 온 국민의 총화로 슬기롭게 조국의 현대화를 세계에 조명하여

찬란했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여야 할 뜻깊은 대축제라고 본다.

여기에 몇가지 문제점을 제기한다면 國土의 綜合計劃이나 또는 都市計劃에 있어서 건축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되리라고 본다.

최근 수도 서울 주변의 확장지역이 구태의연하게 형성되는 시가지를 볼때 마다 건축부재를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그야말로 도시공간의 조형, 미관등이 말이 아니다. 난립된 건축군의 조잡성과 추악상이 어떻게 세계의 눈에 조명될까 두렵다.

당국은 취약지구로 정하고 재개발을 서둘고 있지만 그것은 미봉책에 불과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결단성 있는 대책이 요망된다.

건축은 시대의 거울이라고 한다. 또한 역사의 증언자이기도 하다.

이제 새시대의 章이 열리고 선진 조국의 발전된 참 모습이 건축전문직자인 建築士의 손에 의하여 착실히 하나 하나 창출되어 서기 2천년대의 새시대에 도약하는 초석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먼저 전문직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보호육성이 절실히 요망된다.